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홍선연^{1*}

¹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Relation among Stress, Ego-Resilience,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in graduate medical student

Sun-Yeun Hong^{1*}

¹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University

요 약 최근 의학교육은 의과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체제변화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처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대비한 임상수행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대생들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에 따른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D시에 소재한 일 의학전문대학원생 97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19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었고 자기 효능감의 하부영역인 자신감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은 임상실기수행능력의 하부영역인 CPX와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의 하부영역인 과제난이도 선호는 OSCE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임상실기수행능력의 하부영역인 OSCE와 CPX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는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임상실기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임상실기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medical education is undergoing system transition from a medical college to a medical graduate school and introduction of performance test in the doctor license state examination. Therefore, To deal with these challenges, it is needed that medical faculty prepare the education programs for considering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improving Clinical performanc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relation among Stress, ego-resilience, self-efficacy and Clinical performance in graduate medical student, and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of 97 medical graduate school students in D city during the period from August 19st to 20st. 2011. The study fou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Ego-Resilience, a positive correlation of stress with confidence at low region in Self-Efficacy. Ego-Resilience correlates positively with CPX at low region in Clinical performance, Preference for difficulty level of the task at low region in Self-Efficacy correlates negatively with OSCE. OSCE and CPX at low region in Clinical performance are positively correlated. Therefore, Stress reduction of students can improve Self-Efficacy, Furthermore, improve ultimately Clinical performance. According to this study, To improve Clinical performance competence,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and education programs for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advancement be reflected in curriculum.

Key Words : Stress, Ego-Resilience, Self-Efficacy,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Clinical Practice Examination

*교신저자 : 홍선연(hsy1009@hanmail.net)

접수일: 11년 10월 19일

수정일 (1차 11년 11월 10일, 2차 11년 11월 18일)

계재확정일 11년 12월 13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은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09학년부터는 의사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되어 의학적 이론과 더불어 임상에서의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되고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큰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학부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의대생의 구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심층적 학습접근을 하며 학습조직화가 가능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습 성향을 가지고 있다 [1]. 따라서 변화하는 이러한 의학교육의 대상자와 구조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의대생들은 타 대학생들에 비해 학업, 대인관계, 여가 부족,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많은 생활 스트레스를 느끼며 [2],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3]. 또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들로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4].

자아탄력성은 외상 및 좌절에 대해 조절과 대처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Block(1980)은 자아탄력성을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 통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 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5].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끼더라도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6]. 하지만 지금까지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학업성취 특히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과제 또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며 개인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개인적 판단으로 정의한다 [7]. 즉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도적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이 된다. 많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즉, 학습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임상실습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임상수행능력이 학생개인의 노력과 역량에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에는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나 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Lee(2009)의 연구에서는 이론성적과의 상관성은 보고되고 있으나 실기성적과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들을 종합하면 일반대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학전문대학원들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임상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여 이들의 상관성을 알아보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학생들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한다.
-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 능력이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들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대생들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현재 D시 소재 일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기입요령을 설명하고 설문에 동의한 10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2011년 8월19일 배부하여 8월20일 수거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9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개인이 자원을 초과하여 자신의 안녕이 위협하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한 관계를 말한다[9]. 스트레스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의대생들의 경우 학업과 관련된 요소가 스트레스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판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BEPI)는 1988년 Frank와 Zyznaski가 고안한 스트레스 양 평가도구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배종면 등이 개발하고 1996년 임지혁 등이 수정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11]. 현재는 스트레스의 정량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 내지 감수성 정도를 나타내는데 더 적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 사용하였다[10]. 도구는 폐쇄형 5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각 문항은 빈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을 5로 나눈 평균값으로 2.4점 이상은 고위험군, 1.3점 초과 2.4 미만은 중위험군, 1.3이하는 저위험군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hronba's α .816 이었다.

2.3.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외상 등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조절과 대처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5] 이러한 대처능력은 인간의 자아개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학습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도구는 개인의 탄력성을 직접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척도를[12]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안한 뒤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후기 대학생들에게 실시될 수 있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s α .723 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신념으로 특정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화 하고 수행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7].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신념을 갖고 학업에 임할 때 보다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도구는 비교적 안정성 있는 개인의 일반적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정은(1996)이 개발한 것을 김아영

(1997)이 수정 보완하였다[13]. 이 검사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 요인에 걸쳐 각 요인별로 7문항, 12문항, 5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6점 Likert식 평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는 주어진 각 문항에 대해 피검자들이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약간 아니다(3점)' '약간 그렇다(4점)'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 등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정문항에서는 그와 반대로 채점하여 점수를 합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전체 신뢰도는 Chronba's α .821이었으며 하위 영역인 자신감은 .858, 자기조절 효능감은 .824, 과제난이도 .757이었다.

2.3.4 임상수행능력

의학전문대학원의 임상수행능력의 평가내용은 주로 지식, 수기, 태도이다[14]. 이것은 객관적 임상수기능력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과 임상진료능력시험(Clinical Performance/Practice Examination, CPX)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되는데, OSCE는 치밀하게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임상수기문항을 평가하는 방식이며 CPX는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교육을 수행하게 되며 임상진료문항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 점수는 OSCE와 CPX를 혼합한 점수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치루어진 모의실기시험 결과이며 OSCE가 각 50점 만점의 6문항으로 총 300점, CPX 각 100점 만점의 6문항으로 총 600점으로 9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빈도분석하였고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임상수행능력은 총점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은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30세 미만

이 75.3%, 30세 이상이 24.7%를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45.4%, 여자가 54.6%였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76.3%, 보통이 20.6%, 불만족이 3.1%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이 47.4%, 보통이 29.9%, 불만족이 22.7%로 나타났다. [표 1][Table 1]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7)			
분류	구분	실수	빈도
나이	30세 미만	73	75.3
	30세 이상	24	24.7
성별	남자	44	45.4
	여자	53	54.6
전공만족도	불만족	3	3.1
	보통	20	20.6
	만족	74	76.3
실습만족도	불만족	22	22.7
	보통	29	29.9
	만족	46	47.4

3.2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정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1.87점이었고 측정범위는 1.00-3.40점이었다. 자아탄력성 평균점수는 3.82점이었고 측정범위는 3.00-4.79점이었다.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은 4.34점이며 측정범위는 3.42-5.79점이고 자기효능감 하부영역 별 평균은 자신감이 4.70점, 자기조절효능감이 4.86점, 과제난이도 선호가 3.56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전체 평균은 659.09점이고 측정범위는 504-782점이었다. 하부영역에서 OSCE의 평균점수는

224.88점이며 측정범위는 144-273점이었고 CPX의 평균점수는 434.31점이고 측정범위는 318-517점으로 나타났다. [표 2][Table 2]

[표 2]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Table 2] Mean scores of Stress, Ego-Resilience,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N=97)			
분류	평균(총점)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스트레스	1.87±0.53	3.40	1.00
자아탄력성	3.82±0.38	4.79	3.00
자기효능감	4.34±0.75	5.79	3.42
자신감	4.70±0.70	6.29	3.29
조절효능감	4.86±0.75	6.75	3.00
과제난이도 선호	3.56±0.53	4.80	2.40
임상실기수행능력	659.09±56.84	782	504
OSCE	224.88±25.34	273	144
CPX	434.31±39.08	517	318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은 일반적 특성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나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자기조절효능감($t=6.571, p=0.012$)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전공만족도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의 하부영역인 OSCE($t=4.447, p=0.014$)와 CPX($t=3.036, p=0.048$)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3][Table 3][표 4][Table 4]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of Stress and Ego-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분류	구분	Stress		자아탄력성	
		M±SD	t/F(p)	M±SD	t/F(p)
나이	30세 미만	1.86±0.54	0.124 (0.725)	3.85±0.39	1.974 (0.163)
	30세 이상	1.91±0.53		3.71±0.31	
성별	남자	1.86±0.50	1.378 (0.243)	3.82±0.40	0.261 (0.611)
	여자	1.89±0.59		3.81±0.36	
전공만족도	불만족	1.80±0.35	0.061 (0.941)	4.12±0.15	1.162 (0.317)
	보통	1.85±0.58		3.76±0.43	
	만족	1.88±0.53		3.81±0.37	
실습만족도	불만족	1.92±0.61	0.408 (0.666)	3.76±0.39	0.302 (0.740)
	보통	1.80±0.47		3.81±0.43	
	만족	1.90±0.53		3.84±0.34	

3.4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 [표 5][Table 5]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0.291, p<0.01$)를 나타냈고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과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0.405, p<0.01$)를 나타냈다. 자아탄력성은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인 CPX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0.202, p<0.05$)를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과제난이도 선호는 OSCE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0.234, p<0.05$)를 나타내었다.

4. 논의

의학전문대학원생 4학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1.87점으로 중위험군에 속한다. 이는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특성상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고 국가고시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학생들의 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Table 4] Differences of Self-Efficacy and Clinical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97)

분류	구분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선호		OSCE		CPX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나이	30세 미만	4.93±0.79	6.571 (0.012)	4.77±0.70	1.145 (0.287)	3.60±0.54	0.085 (0.772)	226.03±25.53	0.477 (0.491)	434.18±37.46	0.266 (0.607)
	30세 이상	4.66±0.56		4.52±0.66		3.46±0.49		221.37±24.95		434.70±44.51	
성별	남자	4.89±0.76	0.029 (0.866)	4.65±0.70	0.131 (0.718)	3.68±0.57	1.815 (0.181)	227.34±26.27	0.095 (0.758)	435.09±37.80	0.305 (0.582)
	여자	4.83±0.75		4.75±0.70		3.46±0.48		222.83±24.61		433.66±40.46	
전공 만족도	불만족	4.84±0.80	0.283 (0.754)	4.09±0.44	1.324 (0.271)	3.73±0.76	0.460 (0.633)	183.33±4.73	4.474 (0.014)	394.33±43.94	3.036 (0.048)
	보통	4.98±0.71		4.79±0.74		3.64±0.66		227.00±37.78		423.15±39.69	
	만족	4.83±0.76		4.70±0.69		3.54±0.49		225.98±23.86		438.94±37.74	
실습 만족도	불만족	4.79±0.75	0.733 (0.483)	4.89±0.83	1.035 (0.359)	3.68±0.54	0.791 (0.456)	218.05±25.27	1.661 (0.196)	426.86±32.66	2.569 (0.082)
	보통	5.00±0.82		4.67±0.64		3.50±0.49		222.83±20.68		425.21±36.34	
	만족	4.81±0.72		4.63±0.67		3.55±0.56		229.43±27.56		443.31±42.07	

[표 5]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tress, Ego-Resilience, Self-Efficacy and Clinical performance

(N=97)

구분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OSCE	CPX
스트레스	-						
자아탄력성	-0.291**						
자기효능감	자신감	0.405**	-0.178				
	자기조절효능감	-0.081	0.147	-0.144			
	과제난이도선호	-0.027	0.001	0.125	-0.021		
임상수행능력	OSCE	-0.095	0.193	-0.020	0.112	-0.234*	
	CPX	-0.112	0.202*	-0.067	-0.073	-0.080	0.531**

* $p<0.05$ ** $p<0.01$

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평균 점수가 3.82점으로 나타났는데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Han(2009)의 3.48점보다 높은 점수다[14]. 이것은 연구대상자인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의학전문대학원생은 학부과정을 마친 학생들로서 일반대학생보다 평균 연령이 높고 따라서 사회경험이 많으며 학습기간이 길었던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점수는 4.3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 보면 자신감이 4.70점, 자기조절효능감이 4.70점, 과제난이도 선호가 3.56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간호보건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ang(2009)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이 3.91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 연구에서 나타난 3.21점보다 높은 점수다[15-16] 이는 학생의 연령과 이전 대학졸업 유무에 따라 개인의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18],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학습성향이 심층적 접근을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경향이 높고 자신감과 호기심이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1]. 따라서 의학전문대학원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고 특정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화 하고 수행하는 스스로의 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일개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일반화하기는 힘들며 타 집단과의 직접적 비교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생들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대비하여 각 대학마다 임상수기센터 등을 통해 외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고성능 의학시뮬레이터 및 실습기자재를 통한 OSCE 교육과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실제와 진료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CPX교육이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아직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간호계열, 보건계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간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Choi(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7]. 향후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스트레스가 낮은 학생이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내외적 상황에 대한 자기조절력과 대처능력이 스트레스 정도에 깊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향후 의대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신감이 잠재력 개발과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때,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와 경쟁이 높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는 없으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무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2010)의 연구에서 자신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18]. 따라서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자신감은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는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학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은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인 CPX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Shon(200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취간의 관계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학업성취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19].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내외적 환경에 대해 객관적인 통찰력과 상황 재구성 능력,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능력으로 볼 때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특성과 학생간 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CPX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과제난이도 선호는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인 OSCE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OSCE가 일관된 프로시저에 의해 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수기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됨으로서 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과제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OSCE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은 임상수행능력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만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보았기 때문에 대상자의 대표성과 도구에 대한 적절성의 문제로 인한 차이가 아닌지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감소됨에 따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내적·외적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학생개인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스트레스 조절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후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대생들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에 따른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D시에 소재한 일 의학전문대학원생 97명이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4문항, 스트레스 5문항, 자아탄력성 14문항, 자기효능감 24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며, 임상수행능력은 OSCE점수와 CPX점수를 합한 총점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Sheffe test, 그리고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는 1.87점이고 자아탄력성은 3.82점, 자기효능감은 4.34점이며 하부영역인 자신감은 4.70점, 자기조절효능감은 4.86점, 과제난이도 선호는 3.56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나이($t=6.571, p=0.012$)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임상수행능력은 하부영역인 OSCE($t=4.447, p=0.014$)와 CPX($t=3.036, p=0.048$)모두에서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0.291, p<0.01$)를 나타냈고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과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0.405, p<0.01$)를 나타냈다. 자아탄력성은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인 CPX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0.202, p<0.05$)를 나타내었고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과제난이도 선호는 OSCE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0.234, p<0.05$)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일 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 및 학교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3. 스트레스 조절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

Reference

- [1] S. J. Yune, et al., "Relations among Self-Efficacy, Environmental Factors, Persona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edica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4, No. 3, pp. 3-27, 2007.
- [2] P. P. Vitalino, et al., "Medical school press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nxiety", J Nervous Mental Dis, Vol. 172, pp. 30-36, 1984.
- [3] D. I. Kwak. et. al., "A Study On the Stress, Copying and General well-being of Medica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12, No. 2, pp. 227-239, 2000.
- [4] K. S. Hee,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992.
- [5] J. Block, et. al.,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1980.
- [6] A. R. Kim, "The Relation of Self-Resilience Hardness and Stress Coping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2010.
- [7] A.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 Rev, Vol.84, pp. 191-215, 1977.
- [8] H. S. Lee, "Relations among Self-Efficacy, Environmental Factors, Persona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edic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2009.
- [9] A. Monat. & R. S. Lazarus, "Stress and coping(3rd ed)",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1991.
- [10] J. H. Kim, "The Relationship among Temperament and Character, 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Health Behaviors in Medic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08.
- [11] J. H. Im. et al., "The validity of modified korean-translated BEPSI(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as instrument of stress measurement in outpatient clinic",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Vol. 17, No. 1, pp. 42-53, 1996.
- [12] J. Block. & A. M. Kreaman,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erated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349-361, 1996.

- [13] A. Y. Kim. & J. E. Cha, "self-efficacy measurement",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9, No. 2, pp. 51-64, 1996.
- [14] Y. M. Han, "The Mediation Effect of College Students Stress Cop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engths, Ego-Resilience and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2009.
- [15] S. Y. Kang, "Relationships of Self-Efficacy to Creative Disposition and Ability in University Students Major in Health Care",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 14, No. 3, pp.49-66, 2009.
- [16] M. S. Yoo,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linical Skil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Fundam Nurs, Vol.13 No. 3, pp. 343-350, 2006.
- [17] W. S. Choi,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ccordance with major-interest correspond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Pocheon, 2008.
- [18] J. O. Ha., "The Influence of dance classes stress affecting self-efficacy of college major in d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2010.
- [19] H. S. Shon,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learned helplessness on Academic achievement", YongIn University, Vol. 14, pp. 1-22, 2006.

홍 선 연(Sun-Yeun Hong)

[정회원]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0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의생명공학